

카자흐스탄 대학조사를 통한 기독교대학 설립 기초조사 및 사역보고

KFR 1기 훈련팀

제 1장 KFR 소개

1 KFR 소개

Kazakhstan Field Research team은 한동 대학교 아시아 지역 연구소 산하 학생 단체로서 CFR(China Field Research), SFR(South East Field Research), IFR(India Field Research), MFR(Middle east Field Research), PFR(Pacific Field Research) 등의 팀과 함께 세워진 카자흐스탄 현장 조사 팀이다.

2 Vision

King's Kids-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Matthew 6:10)

→ 우리의 왕의 자녀로 그 땅과 민족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Following Hi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atthew 4:19)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는, 사람을 낚는 공동체이다.

Remaining in Him-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John 15:7)

→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공동체이다.

3 Mission

Preaching Gospel-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와 함께 교회개척과 제자 양육사역을 한다.

Research- 대학 설립 프로젝트와 관련한 리서치와 교회 개척의 기반이 되는 카자흐스탄 내 미전도 소수민족 리서치를 수행한다.

4 연혁

2005년 3월 말 한동대학교를 방문하여 저녁 채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신 해밀톤 한인장로교회 김혜택 목사님과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 팀을 통하여,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개척사역을 할 학생들이 일어났다.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카자흐스탄 내에 한동대학교와 같은 크리스천 대학교를 설립할 프로젝트에 아시아지역연구소가 동참하면서 대학설립을 위한 리서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Kazakhstan Field Research team이 구성되었으며, KFR은 기존에 아시아 지역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HGFR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KFR 1기가 2005년 1학기 훈련과 방학 중 10일 합숙, 3주간의 아웃리치와 10일간의 보고서 작업을 마

치고 1기 훈련을 마쳤으며 2기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

5 구성

- (1) 지도교수: 김학철 공간시스템공학부 교수
- (2) 담당간사: 박선아 아시아지역연구소 연구원
- (3) 1st Vision team: 장윤진(04. 디렉터)
 - 최창수(98. 훈련생)
 - 고은애(02. 훈련생)
 - 김봉수(05. 훈련생)
 - 정하영(05. 훈련생)
- (4) 1st Training team: 김혜정(00. 디렉터)
 - 조해은(02. 섬김이)
 - 한해은(02. 훈련생)

제 2장 일정

1 학기 중 10주 훈련 및 합숙 일정

1) 10 주 훈련

(1) Vision team

(2) Training team

	날짜	강의	강사
1 주	3.25(금)~ 3.26(토)	1 차 캠프 (FR 정체성과 스피릿, 크리스천의 역사인식과 정체성)	김학철 교수님 윤은성 목사님
2 주	3.31(목)	십자가의 도 1	김학철 교수님
3 주	4.7(목)	성경적 정탐 훈련	AAP
4 주	4.14(목)	선교적 관점에서 본 지역연구 & 리서치 실습 1	AAP
5 주	4.21(목)	십자가의 도 2	김학철 교수님
6 주	4.28(목)	증보기도와 영적 전쟁	
7 주	5.3(화)	리서치 기법	장선주 연구원
8 주	5.10(화)	복음 세미나 Mission Festival	김혁수 목사님
9 주	5.19(목)	보고서 작성법 및 의미 & 리서치 실습 2	장선주 연구원
9 주	5.20(금)~ 21(토)	2 차 캠프	
10 주	5.26(목)	공동체	김혁수 목사님
11 주		공동체별 러브피스트	

2) 기도회

월	(화), 수, (목), 토	금
열방기도회-채플	10시 기도회-자대302A	HGFR예배-공대108

3) 지역연구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3:00-4:15

장소: 5호관 휴게실

참석자: 김혜정, 조해은, 한해은

4) 10일 합숙 일정

부록에 별첨

2 리서치 기간 일정

일시	Vision team	Training team
7.4	15:30 카자흐스탄 출국, (현지) 20:00 카자흐스탄 입국, 강선생님 만남	
7.5	휴식, 오리엔테이션	
7.6	모임집 외부환경미화를 위한 노력봉사	
7.7	도르카스모임집에서 어린이사역	
7.8	알마티를 돌면서 기도	
7.9	모임집 청소, 카페트 청소	
7.10	살렘교회에서 예배, 강선생님택에서 교제	
7.11	카페트 빨기,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팀과 만나서 철릭으로 이동	
7.12	철릭에서 어린이 사역, 가정 심방	김학철교수님, 윤진규목사님과 카라간다로 이동
7.13	철릭에서 어린이 사역	카라간다도착, 도시파악
7.14	철릭에서 어린이 사역, 노방전도	아스타나에서 대학리서치
7.15	철릭에서 어린이 사역, 노방전도, 축구	카라간다에서 대학 리서치
7.16	발타바이로 이동, 어린이 사역	카라간다에서 대학 리서치, 알마티로 내려옴
7.17	철릭 교회와 발타바이 교회에서 주일예배, 어린이 사역	알마티 도착, 에벤에셀 교회에서 주일예배, 휴식
7.18	발타바이에서 노방전도	KIMEP, KAU 리서치
7.19	말라보트노예로 이동, 어린이 사 역, 가정 심방, 노방전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로 리서치 나갔다가 김혜정 자매가 아파서

		돌아옴
7.20	말라보트노예에서 어린이 사역, 노방전도	김혜정 자매가 계속 아파서 휴식
7.21	훈련팀 비전팀 알마티 에벤에셀 교회에서 만남	
7.22	에벤에셀교회 샤워실 건축작업과 식당일 도움, 박선아연구원 합류	
7.23	메데우 침블락에 오름	
7.24	에벤에셀 교회에서 예배, 휴식	
7.25	(현지) 05:05 한국으로 출국, (한국) 14:00 한국 입국, 23:00 한동대학교 도착	

3 보고서 합숙 일정

7월 26일 휴식

7월 27일 개인 중보기도자들에게 감사편지 발송, 부별 보고서 작성

7월 28-29일 훈련팀: 조사보고서 작성

비전팀: 사역보고서 작성

7월 30일 선교전략 보고서 작성, 개인 간증문 작성

7월 31일 새벽이슬 교회 보고예배, 비전팀 귀가

8월 1-3일 훈련팀: 조사보고서 작성

제 3장 조사 보고서

1 서론

1) 조사목적

카자흐스탄은 지난 1991년 독립 이후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최근에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 약 9%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독립 이후로 계속된 복음전파와 교회개척 사역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년간 하나님께서는 각 곳에서 각 사람들을 이 곳, 카자흐스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주요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각 시골 마을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신도가 약 3,000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에서부터 작은 가정교회에 이르기까지, 카자흐스탄의 주요 종족인 카자흐인에서부터 작은 소수민족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성별과 연령,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편만하게 전해져 왔다. 이러한 복음의 확장 현상은 최근 개정된 카자흐스탄 정부의 종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카자흐스탄 선교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복음의 폭발적인 전파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과 기독교 문화 형성, 복음으로 인한 사회의 총체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사회 총체적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회의 외부적, 내부적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한 사회와 개인의 의식 구조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를 인식하고 은혜교회 유의경 선교사와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는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에 카자흐스탄 내에 크리스천 마인드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제의하였으며, 아시아지역연구소 산하 KFR (Kazakhstan Field Research team)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2005년 7월 카자흐스탄 내 대학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 (1) 카자흐스탄 내 알마티, 카라간다, 아스타나 시에서 도시 별 대학 건물을 관찰 조사하였다.
- (2) 대학별 홍보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대학의 행정실이나 국제협력실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인터뷰하였다.

- (3) KIMEP에서는 2005년판 Catalog를 구입하여 조사, 정리하였으며 재학중인 한국 학생과 전임 교수 한 명을 인터뷰하였다.
- (4) 알마티 에벤에셀교회 김현두목사님, 카라간다 은혜교회 김이교르목사님, 아스타나 은혜교회 바흐트잔 카리모브치목사님과 인터뷰하였다.

2 본론

1) 카자흐스탄 대학 관련 조사내용

(1) 카자흐스탄 내 현 대학 현황

새로운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내 기존 대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KFR 1기 리서치 팀이 알마티시와 카라간다시에서 조사한 대학의 기본정보이다. 카자흐스탄에는 많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알마티시와 카라간다시에서 현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와 선호를 받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6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컫는 KIMEP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음을 밝혀둔다.

① 알마티 KIMEP(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and Strategic Research)

- 슬로건: Education to Change Society
- 설립 목적
국가의 기술과 지식번영을 위해, 정치와 경제부문의 리더쉽을 길러내기 위해
- 설립 년도: 1992년 1월
- 위치: 알마티 시내 Abbai street
- 학생수: 현재 학부생 약 3,800명
- 교수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교수와 현지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 학과: 경영학부, MBA
- 과정: 4년 과정
- 국제협력
미국15개, 대한민국 4개 대학(한국외대, 경희대, 숙명여대, 고려대)과 교류를 맺고 있으며 그 외 헝가리,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파키스탄 등에서 온 152명의 학생들이 유학 중이다.

- 학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CIS 학생들과 타 외국 학생들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다.

- 장학금

Scholarship, Tuition waivers, Housing subsidies, Teaching assistantships, On-campus Employment 다섯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학생이 성적이 좋거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 지급된다.

- 졸업 후 진로

학생이 원하는 대로 진로를 선택해나갈 수 있다. KIMEP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제 1위 대학의 입지를 굳힌 상태이다. 주로 카자흐스탄 내 정치 경제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가게 된다.

- 건물: 본관, 신설 건물, 기숙사 한 동

- 특기 사항

- 공부를 잘 할 뿐만 아니라 부유한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카자흐스탄 경제고문이었던 방찬영씨가 총장으로 있으며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예브’가 스폰서로 알려져 있다.
- 가장 좋은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다.
- Language center: preparatory English Courses, Undergraduate English Courses, Graduate English Courses, Kazakh Language Courses, Korean Language Courses
- Computer 교육: 중앙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
- MBA과정이 특성화되어 있다.

- Web site: www.kimep.kz



KIMEP 전경



KIMEP 수업 장면



KIMEP 수업 장면



KIMEP 컴퓨터실



KIMEP 식당



KIMEP MBA 도서관

② 알마티 KAU(Kazakh American University)

- 설립 년도:
- 위치: 알마티 시내 satpayev street에 위치
- 학생수: 약 1,000명
- 학과:
- 과정: 4년(corresponded course도 있다.)
- 국제학생: CIS,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온 학생들이 유학 중이다.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었다.
- 장학금: 국제협력실 담당자는 장학금이 없다고 밝혔다.
- 건물: 본관 1동, 기숙사 1동
- 특기 사항
 -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 미국의 6개 대학, 이탈리아의 1개 대학, 스페인의 1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많은 학생들에게 외국 유학의 혜택을 주고자 한다.
 - UNESCO Associated school
- Web site:
www.kau.kz



③ 알마티 카자흐스탄 국립 대학교 (Kazakhstan National University) – public university

- 설립 년도: 1934년 (최초로 설립된 국립 종합 대학)
- 위치: 알마티 시내
- 학생수: 약 15,000명
- 교수진: 약 1,500명
- 학과: 13개 단과 대학으로 이루어져있다. (법학부, 생물학부, 화학부, 물리학부, 지리학부, 동방학부, 수학부, 신방학부, 역사학부, 어문학부, 경제사회학부, 철학정치학부, 기술응용수학부)
- 과정: 4년 (석사 2년 과정이 없는 학부는 아직 5년제이다.)
- 장학금: 국비 장학금이 지급된다.
- 특기 사항
 - 카자흐스탄 내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 예비학부가 있어 외국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필요한 언어나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교양과목과 함께 주로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강좌가 있으며 보통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0개월간의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학부를 마치면 카자흐스탄 소재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자격 은 연령, 직업에 상관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단 기간에 마칠 수도 있고 두 언어를 동시에 공부할 수도 있다. 학비는 1년에 개발 도상국 학생들은 1500달러, 선진국 학생들은 2000 달러이다. 강의는 언어교육에 탁월한 실력과 충분한 경험을 갖춘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며 강의 외에도 현지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기숙사 시설도 갖추고 있다.¹
- Web site: 찾을 수 없었다.



까즈구 본관



까즈구 풍경

④ 카라간다 주립대학교(Karaganda State University)-public university

- 장학금: 국비 장학금이 지급된다.
- 졸업 후 진로:
- 건물: 단과 별 건물들이 카라간다 시내에 흩어져 있다.
- Web site: 없음

¹ naver카페 kazakhstanlove.naver.com 에서 발췌



⑤ 카라간다 의과 대학교(Karaganda Medical Academy)

- 설립년도: 1950년
- 위치: 카라간다 시내 중심 쪽 umukanova street에 위치
- 학생수: 약 3000명
- 교수진: 현재 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카자흐스탄에서만 공부한 교수 외에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들도 있다.
- 학과: 7개 학과 개설
- 과정: 7년 (college 2년 후 academy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음)
- 국제학생: CIS, 파키스탄 등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유학 중이다.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정확한 수는 파악하지 못했다.
- 학비: 192,000 텡게- 약 1,400 달러 (학생 기숙사 무료)
- 장학금: 전국에서 medical academy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 상위 1000명은 학비가 면제된다.
- 졸업 후 진로: 카자흐스탄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주변국으로 가서 의사로 활동하기도 함
- 건물: 본관 외 대학 건물 4 동, 기숙사 7동
- Web site: 없음



⑥ 카라간다 경제 대학교(Karaganda Economics and Financial University)

- 학생수: 약 1000명
- 학과: 7개 학과 개설(finance, cashing, marketing, management, economics, government management, social work)
- 과정: 4년(corresponded course도 4년)
- 학비: 90,000- 97,000텡게-약 700 달러 (corresponded course는 45,000텡게)

- 장학금: 학교에서 30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대학 총장이 세운 다른 회사들에 100% 취업한다.
(Valute Transit company)
- 건물: 본관, 기숙사
- Web site: 없음



(2) 신생 대학 설립 장소

적정한 대학설립 장소로 고려된 곳은, 신수도인 아스타나와 아스타나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인 카라간다였다. 설립가능성을 염두하고 두 도시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① 아스타나

아스타나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아스타나 은혜교회가 확보하고 있는 교회 건물을 사용하여 대학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아스타나 은혜교회가 빌려 사용하고 있는 땅은 125m-119m 크기이다.)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것만으로도 이 도시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많은 의미와 시너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시작하면서 최소 15만평의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스타나는 계속해서 지대가 오르고 있으며 시 근교 100km내의 땅들은 이미 부유층에 의해 다 확보된 상태여서 이들로부터 땅을 제공받지 않는 한 아스타나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카라간다

카라간다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아스타나와 마찬가지로 카라간다 은혜교회가 확보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를 사용하여 대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아스타나와 동일하게 미리 카라간다 근교의 땅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라간다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카라간다 시내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 근교 광야를 확보해서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이 때에는 가스관과 수도관 공급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3) 카자흐스탄 교육 시스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교육과정이 나뉘어져 있는 한국의 교육 상황과 달리 카자흐스탄은 학생이 한 학교(쉬콜라)에 입학하면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같은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받는다. 학기는 매년 9월 초에 시작되며 5월 말이 되면 긴 여름 방학에 들어간다. 학교에서는 9학년까지 마치고 college로 갈 수 있으며, 종합대학으로 진학하기를 결정한 학생들 중에 우수학생들은 특별히 그 학교 내의 ‘짐나지’라는 2년 과정 공부를 할 수 있다.

11학년까지 마치고 나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시험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며 4과목(러시아어, 카작어, 수학, 역사) 120문항에 120점으로 되어 있다. 이 시험에서 40점 이상 받으면 정부에서는 학생에게 증명서를 주는데 이 증명서를 가지고 학생은 원하는 대학 한 곳에 입학신청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입학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입학 정원에 비해 입학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성적 순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대학마다 중점을 두어 입학 시험 성적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과목이 있다. 예를 들어, 이공대의 경우는 수학 과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입학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은 college, institute, academy와 university로 나누어 지는데, college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2년 과정 전문대학이며, institute는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단과대학이다. Academy도 institute와 비슷하게 중점적인 학과를 두어 교육하는데 의과일 경우는 7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University는 종합대학이며, 그 중에서 국립대학이나 주립대학은 공립 대학이다.

남학생의 경우, 대학교에 입학하면 여름 방학 중에 한번, 3달 동안 군대 훈련을 하는 것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 대체된다.

(4) 대학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카자흐스탄에서 대학설립을 위해서는 종교성, 법무부, 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에서 문교부의 허가를 받기가 가장 어려우며,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 신학교들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한동대학교 내 Mission & Law 팀이나 Law school에 계신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 분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2) 한동대학교

(1) 교훈

사랑, 겸손, 봉사

(2) 건학 이념(설립목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및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성, 인성, 영성의 고등 및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교육목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수, 연구를 통해 참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을 진흥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Vision statement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21세기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국제적인 대학교가 될 것이며, 탁월한 자질과 훌륭한 기독교적 인성, 특히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겸비한 새로운 지도자들을 배출할 것이다.

첫째, 한동대학교는 사랑, 겸손, 봉사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각계 각층의 정직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둘째, 한동대학교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직한 국제적 지도자를 양성한다.

셋째,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세계관 아래 여러 학문 분야에 헌신하여 교육의 참된 목표를 확립하고 성경적 창조론을 회복하며, 훼손된 윤리 도덕을 회복시켜 나가는 유능하고 정직한 지성인을 양성한다. (이사야 58:12)

(5) 커리큘럼

① 학부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졸업 가능 학점은 140학점이다. 기초학부(1학년), 국제어문학부, 법학부, 상담사회복지학부, 언론정보문화학부, 경영경제학부, 공간시스템공학부, 생명식품과학부, 산업디자인학부, 기계제어시스템공학부, 전산전자공학부, 그리고 산업교육학부(야간제)까지 12개의 학부가 있다. 학부 선택은 2학년 때 가능하며 타 학부와의 연계전공이 가능하다. 교육 시스템상 복수 전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② 대학원

현재 6개의 대학원의 운영되고 있다. 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계절제), 통번역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국제법률대학원이 있으며 국제경영대학원과 국제법률대학원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특별히 국제법률대학원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미국 법과 국제법을 공부하여 국제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3) 신설대학 설립방향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이 대학의 가명을 Kazakhstan Global University(이하 KGU)로 정한다.

(1) 대학의 비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열방을 섬기는 리더들을 배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KGU와 관련한 대학설립위원회의 발족이 요구되며 그 안에서 의 기도와 비전 나눔을 통한 vision statement 작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설 대학 설립 장소

현재 구상중인 대학의 적정 부지는 약 60만평(200만m²)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아스타나는 현재 높은 지대로 인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그에 비해 카라간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지리적으로 볼 때 카라간다는 카자흐스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중심을 통과하는 기차길과 도로가 카라간다 시를 지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신수도인 아스타나와도 차로 3시간 거리에 있어서 수도와의 활발한 교류도 충분히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카라간다에는 구소련 당시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은 사상범들을 수용한 수용소가 있었다. 카라간다에 수용되었던 사상범들은 소련이 붕괴된 후 주로 이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카라간다 시민은 다른 도시민보다 지적 수준과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카라간다 은혜교회 김이고르목 사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것을 입증하는 듯이 카자흐스탄에서 카라간다는 ‘학생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다른 도시에 비해 학교와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카라간다의 높은 지적 수준과 교육열은 카라간다에 대학을 세웠을 경우 시너지 효과를 생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지가격과 지리적, 역사적 사실들을 고려할 때, 현재 계획중인 대학교는 카라간다에 설립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3) 학생

현재 예상되는 최소 학생수는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에서 개척한 100개 교회

에서 올 수 있는 약 100명과 은혜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학생 약 400명, 그리고 기타 카자흐스탄 내 교회에서 교육받고 있는 약 100명, CIS 국가 내에서 올 수 있는 학생 약 200명 정도이다. 따라서 제 1회 전체 입학 가능한 학생 수는 약 700명에 달한다. 한동 대학교가 95년에 400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여 지금도 매년 약 7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이미 많은 현지 교회들을 통해서 크리스천 대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이들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국가가 될 것이다.

(4) 시설

학생들의 수가 최대 약 700명 정도로 정해질 때, 먼저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과 학교 행정과 조직을 위한 본관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기숙사)이 필요한데, 한동 대학교와 같이 전원기숙사생활을 하고자 할 경우는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건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원기숙사생활이 학교수칙이 될 경우, 카자흐스탄 일반대학의 식당들이 점심밖에 제공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하루 3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도서관, 언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위한 센터, 채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시설이 구비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대학을 기대할 수 있다. 한동 대학교의 경우, 95년도 개교할 당시에는 본관과 기숙사 1호관 두 건물 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지난 지금, 교육을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셨다.

(5) 커리큘럼

KGU는 종합대학으로 4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수업을 들을 만큼 충분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1년간 영어 수업을 먼저 열 것을 제안한다. 입학 시에 영어 시험을 쳐서 영어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영어 수업을 이수한 후에 학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한 국가에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국가의 현재 필요와 미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며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관련 분야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고려할 때, KGU도 경제관련 학부와 실제적인 국가개발과 관련한 학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설립 시에는

경제학부와 건축학부, 의학부, 법학부 등이 먼저 세워질 것을 제안한다.

(6) 운영자금

현재 KGU의 설립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와 복미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KGU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라간다 은혜교회를 중심으로 한 현지 교회들을 통해서도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금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학을 어떻게 세우시고 만들어가시는지 그 분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3 결론

1) 보고서를 마치며

21세기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신속한 세계화(globalization)가 일어나고 동시에 각 지역과 나라, 종족이 개별적 특성화되는 지역화(localization)가 일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화(globalization)에 발맞추어 국가가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번영과 발전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또 CIS에 속하여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변화와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립 후 불어온 복음의 바람으로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으며 그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서 지금은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 이 열매들이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또 다시 죽어짐이 필요하다.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죽어짐에서 시작하여 나라를 위한 섬김과 희생의 죽어짐까지 나아갈 때, 카자흐스탄은 CIS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카자흐스탄은 그 일을 시작하려 한다.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성과 인성을 연마하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려 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대학 KGU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이다.

KGU가 실재화 되기 위해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와 카라간다 은혜교회, 한동대학교는 협력하여 대학설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조사팀은 KGU 설립위원회가 조직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KGU 설립위원회를 통하여 더 구체적인 조사와 보고, 계획들이 수립될 것이다.

KGU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먼저 세워진 한동 대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다. 한동 대학교와 KGU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학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데 사용될 것을 확신한다.

2) 기도제목

- (1) 대학 설립을 위해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조사팀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잘 조사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 (2)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카자흐스탄 법 정보와 설립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 (3) 대학 설립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게 하시고, 설립지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도록
- (4)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 (5)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본 교수님과 학생들이 KGU로 거룩한 부르심을 입고 나아오도록(현재 30명 정도의 교수가 필요함)
- (6)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카자흐스탄과 북미, 한국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 (7)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4 부록

1) Mission statement of KIMEP

KIMEP is a nonprofit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ts mission is to develop well educated citizens and to improve the equality of life in Kazakhstan through teaching, learning, the advancement of knowledge in the fields of business administration,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and through community service. To fulfill this mission we offer graduate and undergraduate degree programs at the higher level of international educational standards in business,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to outstanding students, who will become equals to graduates of universities anywhere in the world. We seek to select students from among those who demonstrate leadership, talent and

language capabilities, irrespective of their financial means, gender of ethnic origin, or any other subjective criteria.

To complement the core degree programs, continuing education and improvement on qualifications are available in several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open to all professionals and educators from all regions of Kazakhstan. We provide our students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merican and European busines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which better their own future and the future of the entire nation. With a KIMEP degree, a person is armed, not only with practical problem solving and analytical skills, but also a wide depth of knowledge of the socio-political environment, a deep sense of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well being of the nation. With a network of diverse students, distinguish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faculty, extensive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academic institutions, KIMEP will continue to prove itself worthy of the reputation it has gained as being the finest academic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2) History and achievements of KIMEP

5 참조

KIMEP 2003-2005 catalog

한동대학교 커리큘럼: www.handong.edu

제 4장 사역 보고서

1 사역목적

7월 11일부터 중앙아시아 선교협의회(이하 중선협)와 합류하게 됨에 따라 KFR 비전팀은 4개 시골 마을을 순회하며 노방전도 사역을 하는 이규선 전도사님 순에 편입되게 되었다. 실크로드를 따라 이어져 있는 말라보뜨노예, 가락뚜룩, 발타바이, 칠릭 마을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노방전도 및 어린이 사역, 가정 심방, 사역자들 보조를 하였다. 모든 일정을 중선협과 같이 하게 됨에 따라 사역목적을 중선협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양의 노동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자는 비전팀의 고유의 목적과 영혼구원, 교회개혁, 사역자들 보조라는 중선협의 목적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복음 전파라는 크리스천의 큰 뜻대 안에서 별다른 탈없이, 하나의 팀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이 다른 두 팀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사용하셨다. 이에 따라 KFR 1기 비전팀의 사역목적은 ‘복음전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2 사역내용

1) 어린이 사역

(1) 어린이 사역 준비

어린이 사역은 우리가 가서 머무는 곳마다 하게 되었다. 알마티 도르카스 공동체, 칠릭 교회, 말라보뜨노예 교회, 발타바이 교회에서 레크레이션과 태권도 교육, 공연을 통한 복음전파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KFR 비전팀은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10일 합숙 기간에 OM선교회로부터 복음이 담긴 마술과 마임 등과, HGFR로부터 워쉽 댄스를 배웠고, 풍선아트, 종이 접기를 준비했으며, 운동회를 기획해서 필드로 나갔다.

(2) 도르카스 공동체 (알마티)

① 소개

강릴리아스 선교사님께서 위구르민족 공동체인 ‘도르카스’(도르가)를 미망인임과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위구르족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지급을 통한 자생력 창출과 더불어 복음증거를 목적으로 시작하셨다. 지금은 아주머니 6~7명과 하숙생 소수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② 대상

알마티 도르카스 공동체 자녀들, 마을의 아이들

③ 기간

7월 7일 11시- 17시

④ 내용

사전에 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소문을 내 놓으셨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위구르족의 민족성을 고려한 최상의 홍보전략). 그리고 그날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고, 현지인과 KFR팀원이 짝을 이루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끌어 모으기도 했다. 근처 운동장으로 가서 운동회를 한 후 점심을 먹고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날씨가 무척 무더워서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실내에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게임, 풍선 게임 등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한 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 공연 프로그램(위습, 하나님의 사랑 skit, 마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⑤ 평가 및 제언

- 기획된 프로그램 이외에 여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어야 아이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 대체해서 진행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아이들을 리드하거나 복음전달을 위한 간단한 러시아어 회화 정도는 배워가야지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진행시킬 수 있다.
- 사역 전에, 사역 중에 기도하는 것 게을리 하지 말자. 어린이사역 성공의 여부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에 달려있다.

(3) 칠릭 교회(칠릭)

① 소개

실크로드를 따라 중선협이 개척한 4개 교회 중 하나. 4개의 교회 중 알마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마을의 교회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고, 점점 더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고려인이신 브루노 목사님과 스비에타 사모님께서 계신다.

② 대상

칠릭 교회 주위에 살고 있는 마을 아이들

③ 기간

7월 12일- 15일

④ 내용

일시	시간	내용
7/12	10:00 - 12:00	레크레이션+ 공연
7/13	10:00 - 12:00	레크레이션+ 공연
7/14	10:00 - 12:00	레크레이션+ 공연
	16:30 - 18:30	축구 사역

7/15	10:00 - 12:00	레크레이션+ 공연
	18:00 - 20:30	축구 사역

칠릭 마을에서의 어린이 사역은 교회 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진 프로그램과 동네청년들과의 축구를 통한 친목도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에 마을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모아 교회 내에서 레크레이션과 복음 전달을 위한 공연(위셋, 마술, 연극)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마을 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동네청년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벌여 7/15일 청년들을 교회로 초대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역 초반에 잘 나오던 아이들이 후반기로 가면서 한 명 두 명씩 오지 않아서 실상을 알아봤더니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교회에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도 역시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는 타 지역과 동일한 것 같다. 축구 사역을 할 때 외국인이 와서 축구 시합을 한다는 것만으로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

⑤ 평가 및 제언

- 어린이 사역 준비는 항상 넉넉하게 해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도르카스에서 거의 모든 어린이 사역 재료들을 써버려서 칠릭에서는 고작 풍선 몇 개 밖에 사용 할 수 없었다.
- 축구를 좋아하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인 만큼 공을 준비해가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이번 사역에는 중선협에서 공을 지원 받았다
- 아이들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면 아이들과 빨리 친밀해질 수 있다.
- 여름에는 날씨가 무척 무더워서 정오를 기점으로 한 두 시간 전후에는 야외 사역을 하기 곤란한데, 이때 수박을 준비하면 시원하게 사역을 마무리 할 수 있다.
-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 오지 못해서 김학철 교수님께서 주신 사탕, 초콜릿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에겐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거의 필수이다.

(4) 발타바이

① 소개

실크로드를 따라 중선협이 교회를 개척한 한 지역. 우리가 머물렀던 집은 3년 전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셔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승환 성도님 댁이었다.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발타바이 교회가 있는데, 현재는 교회 건물이 없어 현지인의 집을 빌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현지 사역자 세르게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어린이 사역은 근처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학교 뒷 뜰에서 진행하였다.

② 대상

발타바이 마을 아이들과 근처 학교아이들

③ 기간

7월 16일 - 18일

④ 내용

일시	시간	내용
7/16	15:00 - 17:00	레크레이션
7/17	15:00 - 17:00	레크레이션, 태권도 교육
7/18	15:00 - 17:00	레크레이션, 태권도 교육, 종이접기, 공연

발타바이에서의 사역은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넓은 장소(학교 뒤뜰)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 했다. 사역자 세르게이가 어린이 레크레이션(찬양, 율동)에 은사가 있어서 레크레이션 시간은 세르게이가 중심이 되어 진행 하였다. 현지 찬양과 재미난 율동으로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레크레이션 후 중선협 팀원인 서영원 형제님께서 태권도 사역을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지 않은 아이들을 모아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고, 포도나무를 만들어 자기이름을 적어 붙이게 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그 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공연(워십, 연극, 마술)을 하였다.

⑤ 평가 및 제언

- 학교를 빌려서 어린이 사역을 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넓은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쉽게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 레크레이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고 사역자 세르게이에게 모두 맡기다시피 한 것에 대한 반성이 들었다.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쾌하고 움직임이 있는 찬양과 율동을 준비해야 한다.
- 어린이 사역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간단한 러시아어 준비가 요구된다

(5) 말라보뜨노예

① 소개

중선협이 실크로드를 따라 개척한 교회 중 한곳. 현재 교회 건물이 없어 현지인의 집에서 예배 및 성경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크로드 바로 옆에 있어서 찾기 용이하다. 현재 현지 고려인 사역자 유라가 담당하고 있다.

② 대상

말라보뜨노예 지역 아이들

③ 기간

7월 19일-20일

④ 내용

일시	시간	내용
7/19	17:00 - 19:20	레크레이션
7/20	18:00 - 20:30	레크레이션, 공연, 태권도 교육

말라보뜨노예는 세 지역 중 어린이 사역하기에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 먼저 건물이 실크로드 가 쪽에 있다 보니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에 소음이 심했고, 아이들의 숫자도 적어서 우리의 마음도 약간 해이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다. 첫날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둘째 날이자 어린이 사역 마지막 날을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마음이 공유 된 후, 첫날 저녁에 어린이 사역 준비자 들을 모두 불러모아 놓고 회의에 들어갔다. 어린이 사역이 저조했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내고 다음날 스케줄을 완벽히 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 마지막 날에 레크레이션, 태권도와 더불어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의 철저한 준비아래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순조롭게 사역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⑤ 평가 및 제언

- 어린이 사역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실크로드 옆 풀밭에서 행하였는데 어린이들이 활발히 뛰놀 수 없었고, 매연이 심하였다. 다음부터는 어린이 사역을 하기 전에 장소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학교나 공원 같은 곳이 어린이 사역을 운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이 부족하였다. 어린이 사역 초기에는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물이나 사탕, 풍선과 같은 물품이 필요하다. 넉넉히 준비하고 부족한 물품은 현지에서 사서 채우도록 한다.
- 19일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어린이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심정으로 기도로 준비하도록 한다.

2) 노방전도 및 심방

(1) 칠릭 교회

① 대상

칠릭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도로의 행인들, 교인들

② 기간

7월 12일, 14- 15일

③ 내용

일시	시간	내용
7/12	12:4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인 심방 ①칠릭 교회 성도이신 아씨르 씨의 병환소식을 듣고 김혜택 목사님과 함께 KFR비전 팀 심방해 병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음.
	저녁식사 시간	②칠릭 교회 성도이신 아칼렘 씨 심방. 꾸란학교 교장이었으나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 교장직 사임함. 저녁을 대접 받고 치매가 있으신 아칼렘 씨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음.
7/14	16:30- 18:30	몇 개의 팀으로 나뉘 노방전도, 땅 밟기 기도 사역.
7/15	16:00- 18:00	몇 개의 팀으로 나뉘 노방전도, 땅 밟기 기도 사역.

(2) 발타바이

① 대상

마을 행인, 상점 주인 등

② 기간

7월 17- 18일

③ 내용

일시	시간	내용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팀으로 나누어 노방 전도 <p>① A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인원 윤집사님, 장운진, 로자, 안드레이 - 사역 내용 *모슬렘 신자: 믿는 자들의 열심을 부러워했다.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가정 심방: 부인이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을 심방 하였다. 남편 분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진심으로 방문을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가 다시 방문해서 영접기도 하겠다고 약속 받았다. *북한 할머니 로자 성도님께서 아시는 분. 내일 점심 때 방문 약속함. → 가는 곳 마다 축복 받고 영접을 약속 받아 감사했다. <p>② B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인원 이집사님, 고은애, 지나 전도사님, 양명욱. - 사역 내용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세 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교회 나오라고 권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복음듣기를 거부했다. → 답답해서 힘들었다. 열매는 우리가 맺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가서 전하되 열매가 없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포도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7/18	10:00-1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팀으로 나누어 노방 전도 <p>① A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인원 민봉호 목사님, 로자, 김 집사님, 최창수, 김봉수, 기나 쥐 목사님. - 사역 내용 *도배중인 한 러시아인을 만났다. 집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있길래 교회에 출석하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셨다. 그때 최창수 형제님이 자신의 고등

		<p>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간증 하셨다.</p> <p>*19세의 한 무슬림 청년을 만났다. 복음을 전하자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렸다. 상처가 많은 듯 보였고, 마음이 상당히 열려있는 듯 했다.</p> <p>*할머니와 손녀딸을 함께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자 집안일이 바빠서 못나간다고 말씀하셨다. 민봉호 목사님께서 권고 해주셨다.</p> <p>② B팀</p> <p>- 구성인원</p> <p>윤집사님, 서영원, 정하영, 고은애, 크리스티나, 안드레이</p> <p>- 사역 내용</p> <p>*땅 밟기 기도를 한 후 건축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그분께 우리가 크리스찬 인 것과 온 목적을 말씀드렸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시며 복음 듣기를 거부 하셨다.</p> <p>*까작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여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 하셨다. 세르게이 사역자의 심방으로 교회 출석을 권유 해야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 하시기를 소망한다.</p> <p>→ 말타바이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다. 믿음의 가정이 충분히 있고, 조금만 열심히 전도하면 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타바이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말타바이에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교회의 구내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p> <p>③ C팀</p> <p>- 구성인원</p> <p>이치환 성도님, 이규성 전도사님, 양명욱, 장운진, 지나 전도사님</p> <p>- 사역 내용</p> <p>*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해주는 곳에서 까작인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완고하게 거부하였으나 나중엔 받아 들였다. 그리고 교회 출석을 약속 하였다.</p>
20:00	-	

	22:00	<p>*노방 전도 중 잠깐 나타샤 집을 방문 하였는데, 나타샤가 먼저 믿은 자로서 가족들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나타샤의 어머니와, 남동생과 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기도를 받았다.</p> <p>•저녁 식사 후 동일한 팀 구성으로 노방전도 출발.</p> <p>- 사역 내용</p> <p>① A팀</p> <p>*54세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팀원이 말을 걸자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미망인이시라서 상처가 많은 듯 보였다. 예수님께서 이분의 남편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분이 거쳐 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였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시고 예수님을 영접 하셨다.</p> <p>② B팀</p> <p>③ C팀</p> <p>*러시아 아이 2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다.</p> <p>*저녁이 되어 골목에 사람이 없어 복음 전할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p> <p>*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온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현지 생활을 한 기간이 짧아서인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간단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다. 언어상의 문제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많이 아쉬웠다.</p>
--	-------	-----------------------------------------------------------------------------------------------------------------------------------------------------------------------------------------------------------------------------------------------------------------------------------------------------------------------------------------------------------------------------------------------------------------------------------------------------------------------------------------------------------------------------------------------------------------------------------------------------------------

(3) 말라보뜨노예

① 대상

마을 사람들, 행인

② 기간

7월 19- 20일

③ 내용

일시	시간	내용
7/19	14:05- 16:30	<p>•세 팀으로 나누어 땅 밟기 기도</p> <p>-구성인원</p> <p>①A팀</p> <p>민봉호 목사님, 김집사님, 스비에타 사모님, 최창수, 김봉</p>

		<p>수</p> <p>②B팀 윤집사님, 고은애, 양명옥, 정하영</p> <p>③C팀 서영원, 크리스티나, 장윤진, 지나 전도사님, 이집사님</p> <p>-사역 내용 말라보뜨노예 교회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큰 바자르에서 세 팀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길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며 땅 밟기 기도를 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선포하며 기도했다.</p>
7/20	10:20-13:00	<p>• 노방 전도</p> <p>①A팀 - 구성인원 민봉호 목사님, 김집사님, 김봉수, 스비에타 사모님</p> <p>-사역 내용 *박학김 아나톨리 부인의 여동생 고려인 할머니를 만났다. 귀신, 혼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고, 잘못된 전도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셨다. 완고하셨으나 결국 예수님을 영접 하셨습니다. 할렐루야!!</p> <p>*나탈리 라는 게르만족을 만날 수 있었다. 관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습니다.</p> <p>②B팀 -구성인원 윤집사님, 고은애, 정하영, 안드레이</p> <p>③C팀 -구성인원 이집사님, 양명옥, 장윤진, 지나</p> <p>④D팀 -구성인원 서영원, 크리스티나, 최창수</p>

제 5장 선교 전략 보고서

1 영적 보고서

1) 보고서의 목적

- (1) 현지의 영적인 정보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정리하기 위함이다.
- (2) 카자흐스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여러 단체들과 정보들을 공유하며 카자흐스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정보를 중보기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알마티 도르카스 모임집²

(1)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위구르 민족에 대한 마음: 위구르 민족 사역자인 강틸리아스 선생님을 통해 위구르 민족에 대한 마음을 받을 수 있었다.

① 수치의식

죄의식 보다 수치의식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 보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 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돈을 훔친 사람이 있어도, 그 훔친 사람 보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더 비난을 받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훔친 것을 말한 사람이 훔친 사람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짓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용서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② 왜곡된 단결과 분열의 영³

위 민족 이름의 본뜻은 단결이다. 그만큼 이 민족은 민족 연합과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따라서 진정한 모슬렘이 아니더라도 “위 사람은 모슬렘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에 따라 자신은 모슬렘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예수를 믿으면 민족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고 배척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공동체에서 배척 당하고, 핍박 받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민족에 대한 단결한 마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는

²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사역하시는 강틸리아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

³ 각주 1의 내용과 동일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③ 깨어진 가정

도르카스에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을 통해 깨어진 가정에 대한 마음을 받았다. 가정으로부터의 상처가 너무 커서 어떻게 사랑 하고 사랑 받는지를 모르는 그 자매님은 모임 집에 들어온 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가 선생님과 공동체의 계속된 기도와 노력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도르카스 모임에 속해있는 자매님들 가운데 이렇게 깨어진 가정으로부터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로부터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가 없는, 목숨을 버릴 만큼 끝까지 사랑하는 큰 사랑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2) 기도제목

- ① 민족적 놀림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진리를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용서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 ③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세요.
- ④ 교회가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칠릭, 발타바이, 말라볼트노예 교회

(1) 지역소개

카라간다 은혜 교회에서 파송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실크로드 선상에 세워진 개척 교회들.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이어진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교회들이라서 중국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오는 길목에 놓여있다. 예전에 카라간다, 알마타 은혜교회에서 파송된 사역자들에 의해 많은 교회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역자들이 떠나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 남은 교회가 얼마 되지 않는다.

(2)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①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중선협)와의 연합

우리 팀과 별개로 생각하고 중선협의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되어 나아가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실제로 중선협 팀의 교회개척 사역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할 때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다.

② 교회개척과 사역자의 어려움

최근 몇 년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그 곳에 현지인 사역자가 한 명씩 남아 섬기게 되었다. 노방전도를 다니다 만난 사람 중에 “예전에 교회에 다녔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사역자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 교회가 없어진 경우 때문이기도 하고, 교회가 있더라도 묶어주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다. 칠릭에서 사역자 모임이 있었는데 사역자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곳에서 홀로 남아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 24-25

③ 이단

노방 전도를 하면서 이단 신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 구석진 시골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말세인 것이 분명하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게 하고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가리는 것이 이단의 수법이다.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단전도를 하려고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단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말라보트노에에서는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피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물어 보았더니 이미 이단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까지 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심해 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 전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④ 모슬렘

이 곳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종교를 뛰어 넘어서 생활로 받아 들이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교나 불교처럼 말이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중 대부분도 무슬림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꾸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어떤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 하느냐는 질문에 다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 안다고는 해도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모른 채 자기 민족이 무슬림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슬렘이라는 카작 사람들..... 마음이 많이 아팠다.

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이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시고, 아름답게 창조한 카작 땅에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이 땅에서 온전히 예배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

(3) 기도제목

- ① 복음이 한번도 전파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 ② 이미 세워진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아직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 할 수 있는 예배당이 세워지도록.....
- ③ 사역자들이 매일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 새 힘을 얻기를.....
- ④ 진리를 혼미케 하는 이단 세력들이 추방되도록.....
- ⑤ 이 땅에 무슬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기를.....
- ⑥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4) 대학리서치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기독교를 비롯하여 종교성을 띤 종합 대학이 없다. 중앙아시아 선교협회의 부탁을 받고 카자흐스탄에 한동대학교와 같은 기독교 대학을 세우기 위하여 알마티, 카라간다, 아스타나 도시를 조사했다.

(1)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

① 음란의 영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해 아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밤만 되면 거리에 나와서 술 취하고 음란한 것들을 즐기며,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는 퇴폐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하나님의 대학이 세워져야 함

우리가 대학 설립을 계획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았다.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개척 사역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두 번째 선교 전략으로 ‘현지인 교육’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중이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대학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청년들이 카자흐스탄을 이끌어 갈 리더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대학을 세우실 것이다.

(2) 기도제목

- ① 젊은이들을 잡고 있는 음란의 영들을 대적합니다.
- ② 대학설립에 필요한 사람들(법률관련, 건물 부지관련)을 보내주세요.
- ③ 카자흐스탄 내에서 새로운 교육을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셔서 사회 내의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 ④ 30명 정도, 하나님의 대학에 필요한 교수님들을 보내주세요.

2 전략 보고서

1) 보고서의 목적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2)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곳은 많으나 정보의 부족으로 그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기 힘든 실정이다. 선교적 정보가 부족한 곳에서 그 곳의 민족별, 지역별 리서치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교전략을 제시한다.

2) 카자흐스탄 내에 거주하는 위구르민족⁴

위구르민족은 중국 서북쪽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그들만의 문화를 이루었지만 중국 청조시대에 중국에 편입되었다. 10세기 이래로 위민족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위구르족이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만난 위구르족은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과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들 역시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고 있었으며, 마을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마을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주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위민족은 중요한 선교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마리의 잃은 양이라도 애타게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위구르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카자흐스탄에서 위구르민족을 사역하시는 강틸리아스 선교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방법에 대해 적어보았다.

(1) 조국을 원하는 사람들

① 상황

위구르민족은 중국 청조 이래로 중국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왔다. 하지만 위구르족은 그들만의 나라를 갖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독립투쟁운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위구르족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② 전략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용서함을 전함 - 위구르민족에게 그들의 나라를 뛰어넘는 보다 큰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⁴ 각주 1의 내용과 동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며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적대감과 상처, 분노에 사로잡힌 그들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 온전한 치유와 참된 자유함 속에 거하게 해야 한다.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은 서로 용서할 수 있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2) 우리 의식이 강한 사람들

① 상황

위구르 족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소수민족이므로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며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구르족의 또다른 이름이 ‘단결’과 ‘연합’을 뜻하는 것에서도 이 점은 드러난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공동체 의식은 많은 장애가 되는 실정이다. 기독교를 믿을 경우 그들의 이슬람 전통사회로부터 분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가 그들의 민족의 단결성을 해친다고 이해한다.

② 전략

- 기독교 공동체를 통한 복음의 전도 - 그리스도인 간의 공동체를 형성해(네트 워크) 위구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어도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에는 참된 사랑과 나눔이 있다는 것을 직접 공동체를 조직하여 알아가게 할 수 있다. 위구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훨씬 뛰어 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다.
- 기존 공동체 중심의 복음전도
위구르 족을 전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각 개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경우 공동체 의식이 강한 그들이 뿌리깊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우며 공동체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 단위의 공동체 내에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위구르 족에게 견고한 신앙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① 상황

위구르 족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슬람을 믿어왔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관습상의 종교로 이해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으니 나도 이슬람이다’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에 밝지 못하며 이슬람을 생활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을 믿는 그들은 구약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전략

-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생활방식을 전함 - 오랜 세월 동안 깊게 자리한 이슬람적인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생활방식을 전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그들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에 의해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슬람의 명절(라마단)을 즐기는 것을 없애고 기독교적인 명절을 지내도록 해야 한다.
- 구약에 있는 예수그리스도를 증거 -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들도 구약의 내용을 받아들이며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구약에서 증거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구약에서 제시된 예수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면 복음전도가 수월히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믿고 있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 신약을 통해 구약을 재해석 - 신약에는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재해석한 부분이 많다. 특히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는 구약을 믿는 이슬람사람들에게도 훌륭하게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신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 놀라운 메시지일 것이다.

(4) 춤과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① 상황

위구르 사회에서 춤과 노래는 중요한 사회 활동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춤과 노래를 즐기며 특별히 사랑한다.

② 전략

예배 시에 전통 춤과 악기를 사용하면 사람들의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별 전략

(1) 칠릭

① 상황

칠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칠릭의 마을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여러 번 캐나다에서 온 선교팀이 다녀가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하여 알았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모슬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교가 아닌 생활양식에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슬람교에 관한 마음을 결코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모슬렘이라 주장하는 칠릭 마을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 주면 바로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다. 칠릭 마을의 사람들은 이라크, 이란 등에 있는 모슬렘과는 다르게 배타적이지 않으며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인 편이다. 칠릭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원한다. 또한 이 곳은 어린이 사역을 맡아줄 청년들을 필요로 한다.

② 전략

아웃리치 기간에 대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면 어린이들을 접할 기회가 많다. 어린이들을 만나서 같이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거나, 재미있는 놀이를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좋다.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접기도나, 복음을 전파해 주었을 때 부모들이 알게 되면 아이들을 교회로 모으는데 방해가 받게 된다. 이번 사역에서도 둘째 날 아이들에게 영접기도를 시켜줬었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반대로 인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꺼렸다. 또한 영접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 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겼다.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 먼저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의 종교법이 2005년 7월 9일에 통과되고, 7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대략적인 종교법의 내용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전파 금지,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전도를 할 수 없는 것 등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나 복음전파는 허용된다. 만약 위의 사항을 어기면 1인당 \$100 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사람은 나라에서 추방된다. 카자흐스탄의 종교법으로 인하여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 되었다.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전도 법 중에 알파코스, 오이코스를 추천해 본다. 알파코스는 셀 전도법과 함께 중국교회의 부흥에 영향을 끼치고, 현재 한국교회의 관계중심 전도법의 중심으로 사용되는 전략이다. 원래 알파코스과 오이코스는 관계중심 전도 법을 설명한 책이다. 원래는 10주 과정이지만, 단기로 오는 팀들의 일정에 맞춰서 2주~4주로 기간을 줄이며, 식사와 교제시간을 갖고, 짧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외의 장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나 필드에서 적용할 경우 장

소를 교회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알파코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 신자들 에게도 권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현지인들 중 기독교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다른 시간대에 한번 더 예배를 드리거나, 현지 사역자들의 신방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좋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발타바이의 경우 오전 11시 예배보다 저녁 7시 예배에 더 많은 교인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교회 근처의 사역자들에게 성경세미나 같은 강의들을 해주는 것 역시 현지 사역자 양육의 효과적인 방법이며, 꼭 필요한 부분이다. 현지교회의 사역자들은 대개 단기간의 신학교를 나왔거나 현지에서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원한다. 단기로 오는 선교 팀이 할 수 있는 사역 중 하나이다.

(2) 발타바이

① 상황

발타바이의 경우도 칠릭의 경우처럼 호의적인 분위기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다. 발타바이는 나타샤 자매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로 사용하기엔 약간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곳이며 사실상 교회건물이 없는 셈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홍보가 필요한 곳이다. 발타바이의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몇 있어서, 저녁 7 시에 한번 더 예배를 드린다.

발타바이 역시 많이 다녀간 캐나다 팀으로 인하여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고, 마을의 규모도 꽤 큰 편이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차가 없이는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칠릭을 비롯하여 발타바이 등의 몇 지역은 목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8시가 넘을 때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쉰다. 발타바이의 아킴(의장)또한 선교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에게 호의적이어서 사역을 하기에 수월하다.

② 전략

발타바이는 아킴이 호의적이며 발타바이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초등학교 내에서 할 수 있고, 아이들을 모으기가 쉽다. 아이들 또한 적극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며, 발타바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세르게이 전도사님이 어린이 사역에 능하다. 어린이 사역 도중에 행하여졌던 태권도사역, 율동하며 찬양하는 것, 창의적인 레크리에이션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발타바이의 경우도 교회건물이 필요하다.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는 활동이 필요하며, 몸이 불편하거나,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신방사역을 해주는 방법이 권장된다. 또한 사역자들이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필요하다.

발타바이 역시 칠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통한 전도 법을 추천한다. 발타바이와 칠릭은 마을 주민들이 복음에 대하여 개방적이기 때문에 칠릭에서의 방법과 같이 알파코스과 오이코스 관계 전도 법을 언급해 본다.

(3) 말라보트노예

① 상황

말라보트노예는 칠릭이나 발타바이와는 다르게 교회의 건물이 없으며, 마을의 모양이 실크로드를 따라 길게 있는데다가 규모가 크고, 현재 교회로 사용하는 율라 자매의 집은 마을의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다.

교회의 건물을 그 동안 임대로 사용해 왔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서 현재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모을 장소가 없다. 말라보트노예는 발타바이와는 다르게 학교를 사용하려면 4000~5000 텡게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율라 자매의 집 앞에 길 옆의 잔디밭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었는데 자동차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사역에 방해가 되었고, 어린이들의 안전 또한 100% 장담 할 수 없었다. 현재 마을의 사람들은 다른 마을과 같이 목축업에 종사하거나 밭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한다.

말라보트노예의 마을 주민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다. 이미 여호와 의 증인이 한번 마을에 퍼진지 오래 되어서 마을 주민들의 외국인을 향한 적대심이 강하고, 아이들은 외국인들을 두려워한다. 또한 마을의 모양이 기다랑기 때문에 노방전도가 힘든 지역이기도 하다.

말라보트노예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체첸민족이 많은 편이다. 겉으로 봤을 때 러시아인과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을 하기 쉽지 않다. 이들은 카작인이나 위구르인에 비하여 복음에 호의적이다. 하지만 카작인의 비율도 상당히 많다.

말라보트노예의 마을에는 큰 바자르(시장)가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바자르를 중심으로 길 건너편에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다. 바자르 근처에 사람들이 앉아서 설만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다.

② 전략

말라보트노예에서 어린이 사역과 양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건물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말라보트노예 마을의 모양이 길가에 길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해볼 때, 교회의 위치가 큰 바자르(시장) 근처의 마을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을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역자들을 위한 자동차도 필요하다. 어린이사역을 위한 교회는 아이들을 충분히 모을 만한 공터나 마당이 있는 곳이 적합하다.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목축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이곳에서는 농촌공동체 형성을 통한 복음 전파가 효과적일 것 같다. 이미 종교법이 통과되어 노방 전도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관계를 통한 복음 전파가 차선책으로 부각되는 요즘, 같은 일에 종사한다는 공통분모를 끌어내어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일을 도와주며 친분을 쌓는 접근방법은 전도자를 향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그만큼 복음 전파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단들을 향한 그들의 적대심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기독교가 이단과 다르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면서 참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게 하고, 몸소 실천하는 섬김이 필요하다.

4) 그 외

(1) 이단

① 상황

말라보트노예 지역에 노방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있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원인을 살펴 본 결과 이 지역에 얼마 전 ‘여호와의 증인’이 포교 활동을 벌였고, 그 영향으로 기독교 이단과 기독교를 구분할만한 종교적 지식이 없는 현지인들은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을 같은 부류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에게 대한 시각이 그리 곱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슬람교에 대한 신앙이 더 투철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전략

이단의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다. 그만큼 사단이 이단을 통해 강하게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의 세력을 그 땅에서 끊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방해전략을 펼치는 사단을 대적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단이 위험한 이유는 본질은 기독교와 완전히 틀리지만, 겉으로 전하는

내용은 기독교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기독교 전도자들을 이단 전도자들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지인들은 먼저 색안경을 쓰고 전도자들을 보게 되고, 복음에 마음을 열기 힘들어 진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현지인들에게 먼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복음의 진수를 조리 있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 같다.

(2)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

① 경위

KFR 1기는 이번 리서치 기간을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와 함께 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의 사역 방향은 영혼구원, 교회 개척 이기 때문에 비전팀도 노방전도, 심방 등 타 FR 비전팀의 리서치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해야 할 바들을 알게 하셨다.

② 전략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는 캐나다 헤밀턴 한인장로교회 김혜택 목사님을 대표로 미국, 한국 등 세계 각국 교회에서 헌신자들을 모아 1년간의 훈련을 받고 매해 여름마다 칠릭 지역을 베이스로 하여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2주간 단기로 선교하는 팀이다. 대부분의 HGFR 비전팀이 필드에서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현지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드리는 노력, 봉사를 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 아웃리치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었다. 한 주간 강틸리아스 선생님 댁에 머물면서 각종 사역을 하고 2주간은 중선협과 함께 조금 더 적극적인 복음전과 활동인 노방전도, 심방 등을 하였다. 중선협과 함께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다시 내 안에 복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꼈다. 개개인에게 주신 체험, 은혜도 다양하다.

겨울에는 중선협의 일정이 없어 힘들겠지만, 여름에 필드에 나가는 비전팀의 경우 꼭 중선협과 함께하는 시간을 2주정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3) 사역자들

① 상황

우리가 만나본 사역자들은 칠릭 교회의 브로냐 목사님, 말라보뜨노예 교회의 유라, 발타바이 교회의 세르게이, 가락뚜룩 교회의 제이슨이었다. 사역자들과 중선협간의 대화시간에 참여 했었는데, 사역자들의 많이 지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위의 핏박과 따돌림도 곳곳이 건디는 사역자들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렇게 매일 매일 쏟아지다시피 하는 핏박들을 견디기에는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았다.

② 전략

사역자들의 주위에는 친구가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역지에서 적대적이

고 배타적인 이웃들과 함께 생활한다. 오랜 시간을 들여 한 이웃을 전도하고 양육하면, 그 이웃도 다른 이웃의 핍박 때문에 곧 떠나가버리기 일쑤라는 사역자의 말도 들었다. 이들에겐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양식이 매일 매일 간절히 필요하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들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인 것 같다. 또한 필드에 나가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도와드린다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준비해 각 지역에서 사역 할 때, 그 곳 사역자들은 정말 반가워하고 좋아하셨다.